2026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1기

마음읽기, 사랑잇기

[8회기]

8회기

오프라인 학습공동체

- 1회기~8회기 과정 돌아보기
- 현장 적용 및 교사의 변화
- 앞으로의 방향

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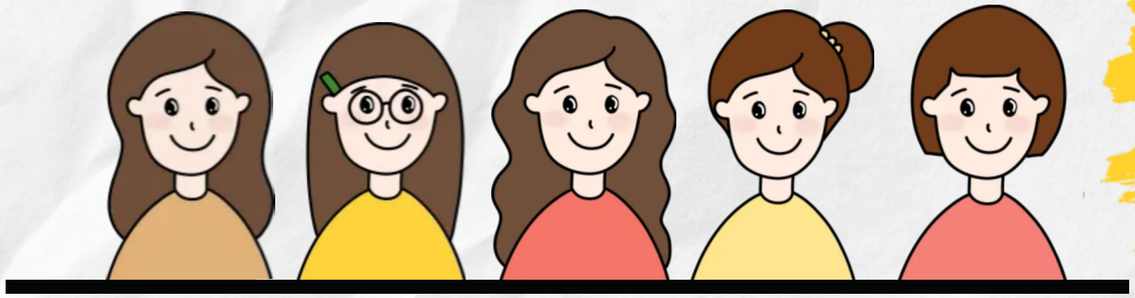
9월 17일
오후 5:00-6:30

장소

00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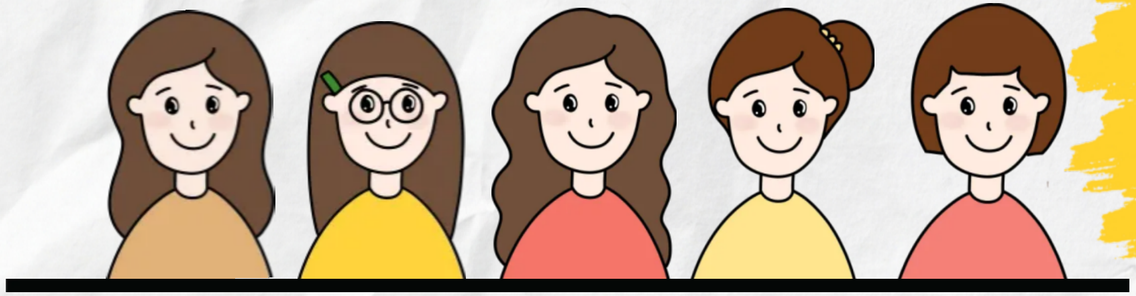
참여자

박T, 원T, 이T, 지T, 김T



1회기~8회기 과정 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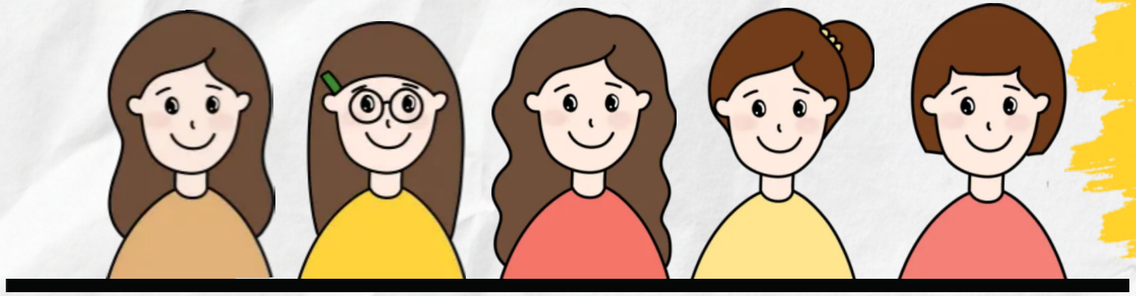
* 처음에는 깨물기·밀기·뺏기 등의 행동을 줄이고 상황별 중재 방법을 만드는 것에 초점 맞춤
* 영아의 발달 특성 및 기질 분석을 바탕으로 또래 갈등 상황 이해하고 교사 중재 방법 고민함
* 멘토링을 통해 문제행동을 단순히 '고쳐야 하는 행동'으로 보기보다
  영아의 발달 특성과 기질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전환함



현장 적용 및 교사의 변화

* 실제 보육 현장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 방법 시도함
* 영아의 행동을 바로 제한하기보다 행동의 이유와 특성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 생김
* “안 돼”라고 제한하기보다 영아의 마음과 요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상호작용 증가함
* 일부 영아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교사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새로운 지원 방법도 배울 수 있었음

* “왜 또 이럴까?”보다 “이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고 바라보게 됨
* 문제행동에 집중하기보다 영아의 강점과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시선 생김
* 교사 자신의 상호작용과 중재 방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됨
* 영아의 행동이 단기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요함을 느낌



앞으로의 방향

* 학습공동체가 끝나도 실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례 관찰하고 공유하기
* 영아의 행동을 문제로만 판단하지 않고 발달·기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 영아의 강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지원하는 교사 역할 지속하기
* 한 번의 활동으로 끝내지 않고 교사의 시선과 상호작용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함

학습공동체를 진행하며 느낀점

아이와 교사, 가정의 '마음'을 읽고 '사랑'을 이은 8회기의 여정!

영아들의 깨물기나 놀잇감 다툼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작했던 '마음읽기, 사랑잇기' 학습공동체가
어느덧 8회기의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돌 뭉쳐있던 고민들은 영아 기질 검사를 통해 해결의 꼬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마다 가진 결을 이해하니 갈등 상황에서도 상호작용의 길잡이가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중간 멘토링에서 들었던 ''아이를 잘 들여다보려면 교사 자신의 마음부터 건강해야 한다''는 말씀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힐링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나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읽고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얻은 따뜻한 에너지는 학부모님과의 소통에서도 더 깊은 공감과 사랑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8회기 동안의 배움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제 마음의 영양분이 되어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를 돌보고 아이와 가정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해준 우리 '마음읽기, 사랑잇기' 학습공동체와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T의 이야기

학습공동체 이후 나아갈 방향성

학습공동체 이후 나아갈 방향: 배움을 넘어 지속적인 실천으로!
8회기 동안의 '마음읽기, 사랑잇기' 학습공동체 모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본 모임을 통해 얻은 배움과 성찰을 바탕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천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영아의 기질을 고려한 맞춤형 갈등 중재를 교실 내 일상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깨물기나 놀잇감 빼앗기 등 영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접근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둘째, 나 자신을 돌보는 정서적 힐링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멘토링과 그림책 성찰을 통해 깨달은 '교사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교사 스스로가 단단하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여 영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겠습니다.
셋째, 가정과의 유기적인 '사랑잇기'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원에서의 중재 노력이 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과 영아의 기질 및 성장 흐름을 꾸준히 공유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교사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고민했던 경험을 자산 삼아,
앞으로도 배움을 주저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교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T의 이야기

학습공동체를 진행하며 느낀점

8번의 만남을 마무리하며, 영아들의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교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복되는 문제행동이나 교사가 어려움을 느끼는 행동을 어떻게 수정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학습공동체에서 함께 고민하고 사례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교사가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영아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다르고, 그 안에는 저마다의 강점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
이전에는 문제행동으로 보였던 모습들이 영아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세상을 알아가는 발달과정의 한 모습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 행동에 담긴 영아의 마음을 읽고, 기다려주고, 공감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8번의 만남 동안 동료 교사들과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혼자였다면 놓쳤을 다양한 관점과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아를 이해하는 것은 행동을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만의 기질과 강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T의 이야기

학습공동체 이후 나아갈 방향성

이번 교사 학습공동체를 통해 영아의 행동을 바라보는 교사의 시선이 영아의 성장과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영아의 행동을 단순히 '문제행동'으로 판단하거나 수정하려 하기보다,
그 행동이 나타난 이유와 영아의 마음, 발달적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교사가 되고자 합니다.
모든 영아는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차이는 부족함이 아니라
영아만의 고유한 특성이자 강점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영아마다 그 의미와 필요한 지원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개별 영아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동료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사례를 나누고 배우며,
자신의 상호작용을 성찰하는 교사가 되어 가정과도 어려움 없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가 되어야 겠습니다.
모든 영아에게는 '고쳐야 할 모습'보다 '이해받아야 할 마음'이 먼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행동을 판단하기보다 마음을 이해하고, 부족함을 채우기보다 강점을 발견하며,
아이를 바꾸기보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교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이T의 이야기

학습공동체를 진행하며 느낀점

학습공동체는 이번 회기로 마무리되지만, 여기서 배운 내용을 끝내지 않고 현장에서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행동이 한 번의 지원으로 바로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등 상황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이의 발달 특성과 기질을 생각하면서 관찰해보려고 해요.

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선생님들과 사례를 계속 공유하면서 서로의 방법을 배우고,
잘 되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는 '문제행동을 어떻게 없앨까'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강점을 찾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보고 싶어요.



김T의 이야기

학습공동체 이후 나아갈 방향성

이번 학습공동체를 통해 생긴 작은 변화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교사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실천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김T의 이야기

학습공동체를 진행하며 느낀점

관점의 전환

영아의 갈등 행동(깨물기·밀기·뺏기 등)을 통제 대상이 아닌 발달 및 기질적 특성에 기반한 이해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됨.

상호작용의 변화

일방적인 제한("안 돼")에서 벗어나 영아의 마음을 읽어주고 강점을 찾아주는 공감적 상호작용 실천.

부모 신뢰 관계 재정립

사고 예방을 넘어, 정확한 사실 전달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통한 사후 대처 및 정서적 신뢰 형성의 중요성 체득.



박T의 이야기

학습공동체 이후 나아갈 방향성

✔ 지속적인 현장 적용

공식 모임 종료 후에도 영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동료 교사 간 사례 공유를 일상적으로 이어나감.

✔ 강점 중심 보육 실천

단기적 행동 변화에 조급해하지 않고, 영아의 가능성과 강점을 찾아 지원하는 일관된 안내자 역할 수행.

✔ 성장하는 교사 공동체 유지

교사 자신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영아–교사–부모 3주체가 협력하는 행복한 교실 문화를 구축함.



박T의 이야기

학습공동체를 진행하며 느낀점

학습공동체 전체 과정을 돌아보며, 영아를 바라보는 교사의 관점이 더욱 세심해졌음을 느낌.
특히 영아의 행동을 단순히 문제행동이나 부족한 부분으로 바라보기보다 개별 영아가 가진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음.
영아마다 기질적 특성이 다르며, 이러한 기질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또래와 관계를 맺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등
발달 과정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

학습공동체에서 함께 사례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영아의 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음.
앞으로도 영아의 개별적인 기질과 강점을 존중하며 '무엇이 부족한가'보다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를
먼저 발견하는 교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원T의 이야기

학습공동체 이후 나아갈 방향성

학습공동체 이후에는 영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개별적인 기질과 발달 특성, 강점을 함께 고려하는
관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함.
영아의 행동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놀이와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행동의 의미와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자 함.

영아마다 서로 다른 기질과 발달 속도를 존중하며, 각 영아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상호작용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함.
특히 영아가 잘하는 것과 관심을 보이는 부분을 발견하여 놀이와 배움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이를 통해 영아가 자신의 강점을 경험하며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앞으로도 동료 교사들과 영아 관찰 사례와 실천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서로의 관점을 배우고,
관찰–성찰–실천–공유의 과정을 반복하는 전문적인 교사 학습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원T의 이야기

마음읽기, 사랑잇기



학습공동체 모임은 8회기로 마침표를 찍지만,

교사로서의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